



블로그기자단을 하게 되면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상명대학교박물관은 2018년에 이어 문체부의 2019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참여관으로 선정되었다고해요~

이에 상명대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한국 도자 및 유럽 자기 전시와 연계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 중인 포셀린페인팅교실입니다.

■ 프랑스 - 세브르

- 파비앙스 : 세브르의 모태, 연질 자기, 중국의 청화백자를 모방하여 하얀 바탕을 추구
- 1740년 뱅센에 문을 연 연질자기 공장을 1756년 세브르로 이전
- 1768년 리모주 부근에서 고령토층 발견 이후 자기 제작에 박차를 가함
- 세브르 블루
-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민영화



세브르 폴라크를 도자기, 1786년



세브르 베이스, 1771년, 성명대학교박물관 소장

처음 들어가면 30분정도 강사님이 유럽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강의가 끝나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들을 도슨트와 함께 30분정도 둘러봅니다!







상명대학교박물관 재개관 상설 및 기증유물 특별전

옛 유물로의 초대

-삼국에서 조선까지-

2012. 7. 2(월) 연중

상설전시실에는 삼국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류, 도기류, 자기류, 금속류, 국가귀족유물 등 1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고구려 금니소조여래입상은 북한 지역과 중국 만주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고려의 금동9층소탑과 더불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큰 유물이다. 이 금속공예를 통해 우리 선조가 지니고 있었던 뛰어난 금속공예의 기법, 조형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조선 백자 달항아리는 은은하고 깊이 있는 질감을 지녔으며, 백자청화모란문합에 그려진 밝고 깨끗한 모란문양과 더불어 가공하지 않은 우리 민족의 미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동경, 청동인장, 와당, 락살, 연적 등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상명대학교박물관 재개관 상설 및 기증유물 특별전

유럽의 향기 도자기에 머물다

2012. 7. 2(월) 연중

16세기 대항해시대 유럽에 전해진 동아시아의 '자기'는 유럽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백색의 금'이라 불리우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정제의 백색 자기를 만드는 비밀을 풀기 위한 유럽 여러 왕실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독일 바이렌에서는 유럽 최초로 자기를 탄생시켰다. 초기 유럽의 도공들은 동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문양을 모방하면서 점차 독자적인 문양을 개발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유럽자기의 문양을 꽃·풍경과 인물로 나누어 조명하고, 동아시아와 유럽자기도 함께 감상하면서 도자기를 통한 동·서양 문명의 교류를 살펴본다.







고려시대 공예불탑 佛塔

고려시대 공예불탑은 소탑¹으로, 불구류에 속하는 보탑을 총칭하는 말이다. 고려시대 유적에서는 원형의 금동제 소탑들이 발견되는데, 당시의 목조다층누각 형식을 충실히 모방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또한 석탑 속에서 발견되는 사리장엄구 중에서 소탑 형식을 갖춘 사리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 공예소탑들은 사리장엄구와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19 銅鑄 佛塔
219A Bronze Stupa (Relic Container)
銅鑄 佛塔
佛塔
Bronze Stupa (Relic Container)
1975.10.1

독일 _ 마이센

작센의 제후이며 폴란드의 왕인 아우구스투스 2세는 중국 도자기를 수집하는 마니아였다. 이런 아우구스투스 2세의 원조로 자기를 연구해오던 빅트거는 1709년 적갈색의 경질 도자기 제작에 성공하였으며, 때마침 작센지방에서 발견



된 고령토를 이용하여 경질의 백색 자기를 유럽 최초로 생산하였다. 마이센 자기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든 사람은 1720년에 총감독으로 초빙된 헤플트와 1731년에 조각가 겸 조형작가로 초빙된 쾰러이다. 헤플트는 마이센만의 문양을 개발하였으며, 쾰러는 도자기의 형태와 조각적인 발전을 촉진하여 18세기 중반까지 마이센 자기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다.

프랑스 _ 세브르

1740년에 프랑스의 뱅센(Vincennes)에 문을 연 도자기 공장은 독일의 마이센만큼 뛰어난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 루이 15세의 지원아래 공장을 세브르로 옮겨 본격적인 경질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기에 주석을 함유한 연질도기 파이앙스는 프랑스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어온 도자기였으나 리모주 부근에서 고령토층을 발견하면서 백색 자기 개발이 급진전 되었다. 세브르 특유의 화려함은 로코코양식의 정수이기도 하며, 세브르는 비탕색으로 특징을 나타냈는데, 일명 '세브르 청색'으로 불리는 청금색의 독자적인 색채처리가 뛰어나다.

자료원: '마이센으로의 초대'展 중





박물관은 무료니까 시간 날 때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슨트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리에 이렇게 물감과 컵 등 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하게 교구설명과



포셀린 페인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작하게 되는데

포셀린페인팅이란 백색의 도자기 위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뒤 가마에 구워내는 도자장식 기법으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취미공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예시로 보여주신 컵들입니당 ㅎㅎ

물망초를 그리기로하고 컵에 나만의 디자인을 연필로 먼저 그리는데용



연필로 그리고 안료를 이용해 물망초를 그리는데 이거 은근히 긴장긴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리고 이 안료는 마르는게 아니라 그릴 때 꼭꼭 주의해야하니당!







크크 완성

그려놓으니 또 나름대로 아주 맘에 들어유~?



밑에 나만의 싸인?이라고 해야하나 암튼 이름이나 이모지나 그려넣고 완성입니당

나는 햅삐





다른 분들 다들 아주아주 잘하셔서 감놀
하지만 내눈엔 내가 한게 가장 예뻐보인다구!

암튼 구워서 집까지 배송해준다고해용
빨리 받아보면 좋겠어용 🥰

상명대학교박물관 2019 하반기 포셀린 페인팅 교실 Porcelain Painting Class

상명대학교박물관의 2019 하반기 포셀린 페인팅 교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셀린 페인팅은 백색의 도자기 위에 안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 뒤 기마에 구워내는 도자 장식 기법으로,
이미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지에서 취미공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9 하반기 포셀린 페인팅 교실에 함께 하셔서 나만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강대상 포셀린 페인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수강인원 10명
수강기간 2019년 9월 18일(수)-11월 27일(수) (총 10주과정)
수업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수강장소 상명대학교박물관 81층 세미나실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151 상명대학교박물관)
수업강사 김기현(자민아트 강사)
수강료 250,000원 (재료비 별도) / 2회 분납 가능(125,000원 x 2회)
※ 무리은행 1005-802-230137 상명대학교박물관
접수기간 2019년 2월 - 모집정원 종료시
연락처 02) 781-7920 / 7923, admuse@snu.ac.kr



1단계 과정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큰 플라워 스케치 및 1차 작업	6	앙귀비 2차 페인팅 및 장미꽃 스케치
2	큰 플라워 2차 페인팅 및 완성	7	장미꽃 1차 페인팅
3	모인세리아 스케치 및 1차 작업	8	장미꽃 2차 페인팅 및 완성
4	모인세리아 2차 페인팅 작업	9	꽃 부케 스케치 작업 및 1차 페인팅
5	앙귀비 스케치 및 1차 페인팅	10	꽃 부케 2차 페인팅 및 완성

2단계 과정

회차	내용	회차	내용
1	장미꽃 연습	6	부케 2차 작업
2	장미꽃 1차 작업	7	부케 3차 작업 및 완성
3	장미꽃 2차 작업	8	프렌치 타슬 스케치 및 1차 작업
4	장미꽃 3차 작업 및 완성	9	프렌치 타슬 2차 작업
5	부케 1차 작업	10	프렌치 타슬 3차 작업 및 완성

상명대학교 박물관

저는 원데이클래스였지만 10주과정으로 모집한다고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뭔가에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니 맘도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기분??!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